

누가복음 2:1-20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눅 2:1-5]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아내]¹⁾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와 장소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때이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역사상 옥타비아 누스라는 인물이며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제국을 통치하였다. 총독 구레뇨는 두 번 수리아 총독직을 맡았던 것 같다. 첫 번째는 주전 10-7년경이고, 두 번째는 주후 6-9년이었다. 가이사 황제의 칙령은 구레뇨가 처음 총독이었을 때 내려졌던 것 같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주전 40-4년)의 죽음 이전이며, 또 그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신 것(눅 3:23)과, 디베료 가이사(주후 14-37)가 위에 있는 지 열 다섯 해에(눅 3:1)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등을 볼 때 주전 4~6년경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마 1:16, 20)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헤레

1) Byz A lat 등에 있음.

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그 여자의 남편’(마 1:19), 마리아를 ‘그의 아내’(마 1:20, 24)라고 표현했다. 마리아의 태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마 1:18; 눅 1:35).

[6-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톤 휘온 아우테스 톤 프토토콘 τὸν υἱὸν αὐτῆς τὸν πρωτότοκον)[그 여자의 만아들을 낳아 강보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마 2:1, 8, 16)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았고 포대기로 싸서 구유[소나 말의 먹이통]에 누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1:1, 1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성육신 成肉身)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는 자신을 심히 낮추셨다. 고린도후서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는 말이나 소의 먹이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매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는 세상에서 영광과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대속(代贖)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

본문은 예수님을 ‘말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을 나타낸다. 전통사본 마태복음 1:25에도 ‘말아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마가복음 6:3의 증거대로, 예수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의 남동생들과 또 여동생들이 있었다. 마리아가 평생 처녀이었다는 천주교회의 주장은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다. 천주교회는 이 외에도 마리아가 평생 죄가 없었고 승천하였고 죄인들의 중보자요 기도를 들으시는 자라고 가르치는데 이것들은 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교리들이다.

[8-12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주의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 소식을 증거했다. 역사상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종종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사두개인처럼(행 23:8) 천사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하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다. 그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말은

그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심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다. ‘주’라는 말은 그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 목자들은 가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증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증표까지 주셔서 그들로 구주 탄생의 소식을 믿게 하셨다.

[13-14절] 홀연히 허다한 천군(天軍)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땅 위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BDAG)로다][전통본문]²⁾ **하니라.**

목자들은 홀연히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의 찬송은 가사가 분명하였고 은혜롭고 아름다웠다. 그 찬송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로다”라는 것이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가리킨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다(고후 12:2).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다.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또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와 평화는 구원의 원인과 그 결과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궁핍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을 때 참 평안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린다(요 14:27; 빌 4:4).

2) Byz (syr^{p s}) cop^{bo} arm geo (Diatessaron Origen³⁵) 등이 그러함.

[15-20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천사의 증거와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고 목자들이 그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 주었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갔다.

1-20절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양간에서 탄생하셨고 포대에 싸여 구유에 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다.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마 20:28). 그는 자신을 비어 종의 모양을 가지셨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5-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10-11절). 구주께서는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주시는 자이시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복된 일은 없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결과는 평안이다. 구주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1:28),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14:27).